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고쳐 쓴 소설

[저작권자: 2020년 송정중 2학년 학생들, 무단전재 및 배포 금지]

아래의 소설들의 저작권은 송정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온오프라인의 지면에 실을 수 없습니다.

1. 여자 주인공의 엄마가 서술자

요즘 들어 이 점순이가 좀 이상하다 집에 점순이만 혼자 뒀다 하면 어디로 사라지고 감자라던가 무언가가 꼭 사라진다. 그래도 혼자 심심하니까 그러겠지 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가봤다 며칠 전 밭에 간다고 거짓말을 치고 나무 뒤에 숨어서 점순이를 지켜보았다 아니 나 다를까 점순이 애가 아랫집 닭이랑 우리 집 닭이랑 데리고 산으로 가는 것이다 놀란 나머지 난 소리를 뻥 지를 뻗었다. 그래도 계속 보고 있는데 아랫집 순돌이가 내려오는 걸 지켜보고는 때에 맞춰 닭들을 싸움을 붙였다 그리고 순돌이가 발견하고 둘은 뭐라 얘기를 하더니 꽃밭으로 점순이와 순돌이가 엉켜 넘어졌다 나는 애가 왜 이러나 싶어서 얼른 불렀다 "점순이 이년 어디간거야!" 그랬더니 호다닥 내려 온다 내려오면 무슨 일이나며 물어봐야겠다.

나는 점순이의 엄마다. 점순이가 요새 이상하다. 평소엔 평범하던 애가 갑자기 내 눈치를 살피고, 자꾸 내가 나가는 걸 기다리는 느낌이다. 아무래도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받아왔던 소작인 내 남자애인 점돌이가 문제인 것 같다. 의심만 한채 저녁에 집에 들어와 보니 감자도 몇개 사라져있다. 몇 개는 탄 감자가 버려져있다. 아무래도 점순이가 그런 거 같다. 그래서 며칠 뒤 숨어서 봤더니 점순이가 내가 나가자마자 점돌이네 수탉을 데려오는 게 아닌가, 그러곤 닭싸움을 시킨다. 왜 그러는 걸까?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난 뒤 점순이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사라져서 없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옆집 점돌이네를 살펴보니 점돌이도 없었다. 분명 둘이 뭔가 있는 것 같다. 나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점순이를 불렀는데 그제서야 옷에 다 흠이 묻은 채로 내앞에 나타났다. 꼴이 그게 뭐냐고 물어보자 아무것도 아니라며 넘어간다. 앞으로 둘을 잘 지켜봐야겠다.

2. 여자 주인공의 여동생이 서술자

안녕! 나는 점순이의 동생 말순이야. 우리 언니가 최근에 좋아하게 된 남자가 있는 거 같아. 착각일 순 있지만 오늘 그래서 언니를 쫓아가 보려고. 오늘도 역시 그 남자애에게 가는데.. 헐? 저리 귀한 구운 감자를 준 단 말이야? 이건 좋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 근데 저 남자는 우리 언니를 건들여..? 우리 언니 성격 그닥 좋지 않은데..? 봐, 우리 언니 얼굴도 빨개지고 있잖아!! 저 남자애 어찌려고 저러는 걸까....?

안녕! 나는 여자 주인공의 동생 말순이야 요즘 언니가 이상하지?나는 언니가 덕수오빠한테 관심이 있는거 같아 닭을 과롭혀서 오빠한테 관심을 끌고 그리고 저번에는 부엌에서 혼자 감자를 굽고있는 거야 부모님한테 해주지도 않으면서 그걸보고 진짜 엄청 놀랐단니까.근데 가지고 나간 감자를 다시 들고오더라 오빠가 거절했나?또 나쁘게 말한거 아니야!언니는 표현하는게 서투르니까 이해해줘 그럼 안녕

요즘 점순이가 이상하다. 자꾸만 남주한테 열썩거린다. 왜 저러는 건지 엄마인 나한테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대체 점순이가 왜 저러는 걸까? 오늘은 점순이가 남주에게 '느그 집에는 없지' 이러면서 감자를 주었다. 하지만 남주는 그 말에 속이 상했는지 받지 않았다. 그러니 점순이가 씹씹대며 걸어와 울었다. 나는 그때 알 수 있었다. 점순이가 남주를 좋아한다는 것을 하지만 남주는 점순이가 별로인 것 같다. 그 뒤로 자꾸만 점순이가 죄도 없는 남주네 닭을 괴롭힌다. 관심을 받고 싶은가? 점순이도 참 아직 어린 것 같다.

와 재네 또 싸운다. 뭐 매일같이 싸우는데 안 질리나. 이번에는 또 왜 싸우게 된 거지? 저번에 언니가 감자를 줬는데 안받아줘서 그런가. 하튼 둘이 제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언니는 나이 먹고 그런 치사한 장난을 좀 안하고. 또 하네?! 그만 해 언니야. 그렇게 말하자 언니는 나에게 들리지도 않게 뭐라뭐라 했다. 맨날 수탉 싸우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니. 그냥 밖에 나가서 놀까. 그 때 점순이가 남주에게 욕을 했다. 얼씨구? 이제 욕까지 하네. 다음날 오늘은 남주의 닭이 기가 썩었나? 왜 갑자기 분위기가 바졌지? 그래도 우리 닭은 못 이기지. 그렇지! 우리 닭 잘한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닭을 응원하게 된 나는 남주가 올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구경만 하고 있었다. 잘 때 언니에게 다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해보았지만 여전히 내 말은 무시 상태였다. 다음 날 언니가 사라졌다.

찾으러 다녔지만 보이지 않았다. 어디 갔지? 하고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시간 뒤 언니가 모습을 보였다. 어디 갔냐고 물어보았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를 지닌 상태로 사랑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더 이상 닭싸움은 없었다.

요즘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나보다 혼자 저녁에 웃고 있다. 잘 웃지 않는 언니가 요즘 잘 웃는다. 이상하다.

나는 우리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을 안다. 우리 아랫집 사는 오빠다. 그 오빠가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마다 우리 언니는 그 오빠가 내려오는 길에서 항상 서 있다. 그럼 우리 언니는 그 오빠에게 말을 걸지만 그 오빠는 우리언니에게 관심이 없는 거 같다. 근데도 우리 언니는 맨날 말 거는 거 보니 그 오빠를 많이 좋아하나보다.

안녕~ 나는 점순이 동생 말순이야 요즘 언니가 덕수 오빠를 좋아하는 것 같아. 왜냐고? 요즘 마당에서 덕수 오빠를 몰래 쳐다보고 있어. 그게 좋아하는 거지 뭐야? 그리고 아까는 언니가 감자를 아주 맛있게 굽는 거야 그래서 하나만 달라 그랬더니, 나 완전 혼났잖아. 그래서 누구에게 주나 봤더니 덕수 오빠에게 주는 거야. 그런데 덕수 오빠는 감자를 얹받는다고 하지 뭐야? 언니는 얼굴이 완전 빨개져서 나한테 감자를 던지듯 주고 방에 들어가서 한참 안 나왔어. 그리고 저녁 쯤에 뭔가 결심한 듯 나오더니 덕수 오빠네 암닭을 가지고 괴롭히는거야. 또 다음날에는 덕수 오빠네 수탉과 우리 집에서 가장 싸움을 잘 하는 수탉을 싸움을 시키는걸 며칠을 반복하더니 이번엔 덕수 오빠가 내려오는 길목에 앉아서 싸움을 시켰어. 그랬더니 덕수 오빠도 화가 났나봐 우리집 수탉을 때려 죽이는 거야. 그래서 언니가 무섭게 몰아 부치니 덕수 오빠도 겁을 먹었는지 되게 당황해 하더라고 언니는 그 틈을 타서 다음부터 안 그럴 거냐고 하고 화해를 했다. 언니 그날 집에 들어와서 엄청 좋아하더라.

3. 여자 주인공의 남동생이 서술자

요즘 우리 누나가 이상해졌다. 설거지 하고 밥을 하는 것은 전과 다른 게 없는데 엄마 몰래 나가는 일이 많아졌다. 엄마 몰래 나가는 것 뿐 아니라 언젠는 감자를 구워 가지고

나가는 일도 있다. 내가 엄마한테 말을 하려 보니 나도 그런 적이 있고 누나한테 걸려도 누나가 그냥 넘어간 적도 많아서 엄마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켜보기만 한다. 그러다가 감자를 구워 나간 날 누나가 손에 감자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다. 표정도 나갈 때와 다르게 일그러져있었다. 그러면서 아랫집에 사는 형 이름을 부르며 가만 안둔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설마 누나가 짝사랑을 하는 건가..아 어떡하지 엄마한테 얘기해야 하나 우리 엄마 그 형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아 몰라 그냥 엄마 몰래 나간 건 얘기 안 해도 이건 얘기 해야겠어. 누나 미안..

4. 여자 주인공의 친구가 서술자

나는 풍순이다. 점순이의 친한 친구이다 근데 어느 날 편하게 쉬고 있을 때 점순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풍순아 내 말 들어봐! 내가 김남주에게 감자를 주면서 고백을 했거든. 그런데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남주의 시선을 끌어봐 관심이 있을 걸로.” “좋은 생각이야. 풍순아. 조언해줘서 고마워. 나는 가볼게.” 그 뒤로 3~4일 뒤 남주가 찾아 왔다. “풍순아, 혹시 점순이가 우리 집 닭이랑 점순이네 닭이랑 쌈 붙이는데 혹시 이유를 아니?” “흠.. 나는 모르겠는 걸? 혹시 너에게 관심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가? 나중에 궁금한 게 있을 때 또 찾아올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점순이와 남주의 사이를 붙여주는 게 내 일이야 열심히해야지!’ 그리고 얼마 후 점순이에게 연락이 왔다. 점순이가 남주랑 사이가 좋아졌다는 소식이다!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지금까지 점순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다. 독자들 열심히 봐줘서 고마워~ 그럼 안녕~!

5. 남자 주인공의 엄마가 서술자

요즘 우리 아들 남주가 이상하다. 맨날 나갔지만 오면 뭐 저렇게 화가 났는지 좀 걱정이 된다. 저번엔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이질 않나 밭일을 안 도와주질 않나 애가 많이 이상해졌다. 장가 갈 나이에 연애 한번 못하고 근데 요즘 윗집에 또래 여자애네 집을 많이 가는 것 같다. 혹시 마음이 생겼으면 잘 지내서 장가 가면 얼마나 인생이 편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6. 남자 주인공의 친구가 서술자

난 우소의 친구인 덕우라고 해. 내가 보기엔 위집에 있는 점순이가 우소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우소는 순수한 건지 멍청한 건지. 내 얘기 들어봐봐, 내가 산에서 내려오는 도중에 윗집 사는 점순이를 봐서, 나무 뒤에 숨어 있었는데! 점순 그 계집애가 자기 소매 속에서 구운감자를 우소에게 주더라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 딱 봐도 내 친구 우소를 좋아하는 거잖아~ 요즘 우소가 말하길 점순이가 닭싸움을 시키고, 자기 닭을 괴롭힌다 하길래 내가 우소에게 점순이의 마음을 풀게 선물이라도 주어달라 말했는데,, 내가 그 계집애한테 왜 선물을 주냐고,왜 마음을 풀어 주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산을 내려가더라니까, 그래도 내가 누구잖나 열일곱 한창 청춘인 나이 아니잖나 남녀 간의 사랑을 이루어주어야지 그래서 점순네 근처에서 살짝 귀뜸을 줬지 "우소가 원래 이 시간 때쯤에 산에서 내려오던데.."그럼 이제 내일 우소와 점순이가 만나겠지 우연한 만남 딱 좋지 않겠어?? 다음날이 되고 너무 궁금해 죽겠는데 나도 산에 올라가 물~래 지켜봐야겠다.

7. 남자 주인공의 남동생이 서술자

요즘 우리 형이 짜증나서 오는 것 같다 가끔씩 밖에 나가 보면은 수탉이 다쳐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형이 나무를 하러간 사이 봤더니 어떤 여자가 우리 집 수탉이랑 누구 집 닭

인지는 모르겠지만 싸움을 시키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주인집 딸이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날까봐 일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은 우리 닭이 다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형이 수탉끼리 싸움을 시키는 것을 본 것 같다. 그러자 우리 형은 이번만 넘어간 것 같았다 하지만 수탉의 싸움이 계속되자 우리형은 화난 것 같았다. 다음날 우리 형이 화가 났다. 이번에는 진짜 뭐라 할 것 같았다. 우리 형은 갑자기 수탉에게 빨간 것을 먹였다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수탉이 안 질 것 같았다. 다음날 수탉이 아픈 것 같다. 어제 그 빨간 것이 뭐였는지 물어보니 고추장이라고 하였다. 다음날인데 형이 나무를 캐러갔다가 오랫동안 안 내려온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8. 남자 주인공의 누나가 서술자

오늘 난 남주와 함께 부모님의 일 손을 도우러 밖으로 나갔다.
 "누나 난 저쪽에서 밭 일 하고 올게."
 "그래."
 난 열심히 일하다가 남주가 밭 일로 힘들 것 같아 집에서 새참을 가져왔다.
 그때 이게 뭔가 내 동생 남주 옆에 어떤 여자애 하나가 우리 남주에게 구운 감자를 내밀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밭 도랑 사이로 몸을 숙여 최대한 나를 가렸다.
 놀란 가슴을 쓸어안고 다시 보았더니 이젠 그 여자애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는게 아니던가?
 난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

9. 수탉이 서술자

요즘 웬지 모르겠지만 옆집 슈탉이가 나를 괴롭힌다. 점순이가 슈탉이 보고 시켰나 보다 원래 슈탉이는 나랑 많이 친하지만 점순이가 얘기한 것이라면 불에도 뛰어 들어갈 얘기 때문에 또 점순이가 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 슈탉이가 나를 너무 심하게 때리는 거 같다..... 몸에 상처안난 곳이 없고 목도 때려서 숨을 안쉬어 질때도 많다. 나는 슈탉이보고 그만해주면 안되겠니? 라고 말하지만 슈탉이는 들은 채도 안한다. 그렇게 슈탉이의 갈굼을 당하고 있는 어느날 나의 주인님 남주가 나를 살려주려고 온것 같다. 슈탉이네 주인인 점순이보고 뭐라하는데 자세히는 안들린다. 그런데 갑자기 남주가 쭈익쭈익 거리더니 슈탉이를 매로 내리쳤다.. 슈탉이를 불러봤지만 대답을 안한다. 나는 슈탉이가 나를 그동안 때렸지만 싸우다가도 정이 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나보다 점순이와 남주가 산속으로 도망간후 점순이의 엄마인 점신이가 화가 많이 난듯 하다....

난 남주집의 작은 닭장에 살며 죽음을 기다리는 불쌍한 수탉이다. 며칠 전 내가 닭장에서 본 일을 알려주겠다. 우리 주인님의 아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였다. 옆집 점순이가 일을 하는 우리 남주에게 감자를 주면서 대 놓고 호감을 표현하였다. 근데 우리의 눈치 없는 남주는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거절을 해 버렸다. 진짜 닭대가리인 내가 봐도 정말 우리 남주는 멍청한 것 같다. 그리고 열이 받았는지, 악을 품었는지 모르겠지만, 점순이가 갑자기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우리 집 주인은 가난한 소작농이어서 나는 밥을 많이 못 먹는다. 하지만 점순네 닭은 잘 먹고 커서 피지컬부터 달라서 나는 반항도 못해보고 쓰러졌다. 그리고 내 멍청한 남주는 갑자기 고추장이라는 도핑 약물까지 나에게 먹였다. 진짜 이놈은 아직도 눈치를 못 챌 것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나는 또 싸움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진짜 사건이 터졌다. 점순이가 몰래 나를 납치해가서 지 닭이랑 싸움을 붙히고 지는 피리를 부는 것이 아닌가!? 그걸 본 남주는 뺄돌아서 그만 점순네 닭을 죽였다. 그리고 둘은

화해를 하고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다. 난 사이에 끼어서 정말 슬프다.

우리 주인 남주가 이상하다. 요 근처에 있는 점순이랑 감자 갖고 싸우더니 자꾸 남주를 괴롭힌다 한다. 그런데 이일이 나한테까지 번질 줄 몰랐;; 저번에는 나를 괴롭히더니 이번엔 점순이가 그 집 닭과 나를 싸움을 붙였다. 나는 일방적으로 맞게 되었고 남주가 오고 나서야 싸움이 끝날 수 있었다.